

법 어

오늘은 이 나라 국정운영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불자들의 모임인 청불회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소임자들이 새로운 얼굴로 바뀌면서 청불회 회원들의 면면에 변화가 있지만, 신심이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막중한 책무까지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헌신과 정진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청불회의 새로운 출발을 깊은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청불회는 지난 17년 동안 실행과 정진에 충실하면서도 정부와 불교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위해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나아가 불교적 가치관과 불교계의 목소리를 국정에 녹여내는 소통 창구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청불회의 이와 같은 수고는 이번 33대 총무원의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라는 발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막히고 닫힌 곳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에는 불신과 오해의 벽이 높아지게 됩니다. 닫힌 곳을 열고 막힌 것을 뚫어 원활한 소통을 이룰 때 비로소 국민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화합이라는 과제와 함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남북의 화해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들은 혹시 모를 일에 불안해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심각한 긴장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 몇 년간 계속된 대화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기에 남북의 갈등을 한시 바빠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법의 길 또한 소통과 화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화합과 남북의 화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청불회가 여느때처럼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지부상소(持斧上疏)도 마다하지 않는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소(上疏)는 공직자는 물론 일반 백성들이 임금에게 올린 정사에 관한 충언입니다. 그 중에서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지부상소는 ‘도끼를 지니고 올리는 상소’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목을 쳐달라는 강력한 소신과 진정성이 담긴 상소입니다.

국정운영의 지근거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을 알아보고 지부상소를 올렸던 선조들의 안목과 기개를 갖추었을 때, 새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원력과 신심으로 청와대불자회를 이끌어 오신 박범훈 회장님을 이어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께서 제15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특유의 겸손함과 미소로 진력을 다하신 박범훈 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를 이어 가실 유민봉 회장님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임 청불회장님은 오랫동안 깊은 신심을 가꿔온 분입니다. 일생을 철저한 수행으로 일관하시고 불호령 같은 큰 울림을 주셨던 봉철스님과 깊은 인연으로 수행자의 기상과 풍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랜 사회적 경륜과 신심을 바탕으로 청불회를 이끌어 주시고 다른 불자들과 신행단체의 귀감이 되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정진해야 한다’고 하신 봉철스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 맑은 소임의 부지런함으로 청와대의 귀가 되고, 발이 되고, 손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온기가 국민의 행복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국민민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청불회원 여러분에게는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불자의 신행인 동시에 공직자의 당연한 직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각자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함과 함께, 불자로서의 신행과 회원 간의 교류, 더 나아가 불교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법회의 발원과 공덕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커다란 덕화로 발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관심과 믿음은 국가가 추구하는 모든 일에 중요한 동력이며, 이는 다시 국민에게 행복과 평화로 돌아오는 향기로운 회향입니다. 국민의 평온과 국가의 건승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모두의 정성을 모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년(2013) 5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